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선정

성남시, 탄소중립정책 ‘기후부장관상’

은통일반産團 중심 총 104만㎡ 규모 조성 추진

산업화지원센터·북부농업 R&D센터 건립등 포함

경기 연천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천BIX(은통일반산단지)를 중심으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4일 군에 따르면 육성지구는 연천읍·신서면·군남면 일대 약 104만㎡ 규모로 조성되며, 연천

BIX와 2028년 준공 예정인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경기도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가칭) 등이 포함된다. 이들 인프라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면서 경기북부 전역을 아우르는 바이오산업벨트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군은 울무, 대암리, 협프 등

천연물 기반 자원과 DMZ 접경지역의 청정환경을 보유한 그린바이오산업의 최적지로, 이번 지구 지정은 이러한 연천군의 강점과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이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명확히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육성지구의 중심인 연천을 통연리에 위치한 연천BIX는 2023년 6월 경기도와 군이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군은 이곳을 그린바이오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지원시설, GMP 인증이 가능한 생산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군에서 원료 확보, 소재 개발, 실험, R&D,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 시간 집집과 과정을 처리할 수 있어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천·조영현 기자 cho2@siminilbo.co.kr

경연대회서 ‘성남물빛정원’ 조성 사례 높은 점수

판교테크노밸리 로트 발달등 저탄소 수송사업도

경기 성남시는 기후에너지환경경부가 주관한 ‘2025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여섯 플라자에서 열린 이번 경연대회에는 탄소중립에 이바지한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 등을 선정해 그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총 100개 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각각의 탄소중립 추진 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28년간 발전했던 옛 구미

를 받았다.

이외에도 자원순환가계(23곳) 운영, 탄소중립 포인트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등 시민 참여 기반의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사업들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시는 내년에는 ▲시민 대상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 ▲시민들이 생활 현장(라비)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실행(랩)하는 탄소중립 라비랩 ▲기후에너지 전환정책 탄소중립 교육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오영석 기자 ows@siminilbo.co.kr



지난 3일 하남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12월 월례회의에서 이현재 시장(오른쪽)이 공원녹지·도로관리과(1팀)의 상자로 벤치마킹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27개국 누비며 해외 우수사례 견학

하남시, 올해 공직자 벤치마킹 우수성과 공유

정원속 도시·기업으로 해결 PM등 결과 발표

경기 하남시가 지난 3일 시청 대강당에서 12월 월례회의를 열고, 시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올해 해외 벤치마킹 우수성과를 공유했다.

앞서 시는 공직자들이 자기 분야 최고의 도시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국내 우수 사례 당사사는 물론 전 세계 27개국 배낭여행 등 총 537회에 달하는 국내외 벤치마

킹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1인당 연 최대 99만원의 외국어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자기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해 공직자의 국제적 안목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과감한 투자는 행정 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직원들의 넓어진 시야와 혁신적인 사고가 행정 현장에 접

목되면서, 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올해 해외 선진지를 탐방하고 돌아온 팀 중 ▲공원녹지·도로관리과(1팀) ▲자차·민원·투자유치과(2팀) ▲하남시자회복지사업과(3팀) 등 3개 팀이 대표로 나서 벤치마킹 결과를 발표했다.

공원녹지·도로관리과(1팀)는 싱가포르의 ‘정원 속의 도시(City in a Garden)’ 전략을 벤치마킹했다. 이들은 싱가포르의 벵글루와 공방, IoT·AI 기반 공원 관리, 위

성 기반 ERP 등 스마트 시스템을 분석해, ▲인도네시아 벵글루와 도심 ▲K·스타일드 개발 시 스마트 관수 및 AI 식생분석 적용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도로 안전시설(노란색 위험경고 등) 시범 도입 등을 구체적인 적용 방안으로 제안했다.

자차·민원·투자유치과(2팀)는 독일 뮌헨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행정 시·비스를 공유했다. 특히 북독일민원 시스템을 서비스와 기업에 대해 해결을 위한 PM(Project Manager) 제도 뿐만 아니라, 팀 기반 성과평가와 시민 피드백을 병행하는 인센티브 운영 체계를 ‘협업 중심 행정’의 최적 모델로 꼽았다.

하남·전영훈 기자 jyw@siminilbo.co.kr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최우수’

경기도 평가서 A등급 최고점

특별교통수단 도입률등 호평

경기 광주시는 ‘2025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에 포함된 A등급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군의 운영 실태와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 30만명 기준으로 두 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는 30만명 이상 A등급 16개 시군 가운데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운전원 채용 및 교육 수준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영훈 기자 jyw@siminilbo.co.kr

시는 노후 차량 교시는 그동안 노후 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경기도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힘써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확대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한한 시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46대와 대체 수단 5대 등 총 51대를 운영하며 시민의 이동 편의에 높은 기여하고 있다.

광주·전영훈 기자 jyw@siminilbo.co.kr

건축물관리제 이행 경진대회

이천시, 제도운영부문 ‘우수상’

경기 이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한 ‘2025년 건축물관리제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제도 운영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건축물관리제 실적과 현장 점검 사례를 기반으로 공백 등 공작물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제언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천시 건축과는 사생활인사자를 활용한 업무처리, ‘이천시 건축물관리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천·김민호 기자 mjh@siminilbo.co.kr

시흥시, 노사문화 우수 ‘행안부장관 표창’

2022년 노조 설립이후 최초

시장 직접 참여 모델 돋보여

경기 시흥시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공무원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시상식’에서 우수행정기관 인증서·인공과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얻었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서”는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건전한 노사관계를 발굴하고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우수행정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시흥시를 포함한 7개 기관이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시흥시 공무원 노조가 2022년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인증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시흥·송윤경 기자 ygs@siminilbo.co.kr

세계유산 활용사업 우수사례

‘수원화성 태평성대’ 프로 선정

‘수원화성 태평성대’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5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운영된 3개 세계유산 활용프로젝트를 모더레이션했고, 경기 수원시의 충남 공주시(마곡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2025년 신규 프로그램으로, 올해 2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화성행궁 별주에서 작은 음악회와 함께 1인1공작과 체험을 즐기는 ‘별궁공작과 체험’과 연가 화성시 일죽면의 이색 화성행궁 투어 ‘주인 배우와 함께하는 고종산책’으로 구성됐다. 화성행궁에서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또 지역공동체와 참여해 현장 전문성을 높였다.

수원·임영민 기자 lim@siminilbo.co.kr

고양시, 13년 연속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정소식지 ‘고양소식’ 수상

시민 참여프로 확대등 호평

경기 고양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을 13년 연속 수상했다.

시는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시정소식지 ‘고양소식’이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35회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사)한국사회 협회가 주관하며, 공공기관 및 민

간 기업이 발행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중 우수작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시정소식지 ‘고양소식’은 독창적 기획과 독자 중심의 콘텐츠 구성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모바일 버전인 ‘고양인력’

은 시장 정보를 웹진·전자책 형태로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소식지로, 정성화 비주얼 콘텐츠와 소마일 친화적 구성에 힘입어 연간 구독자 2만4천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매일 발행되는 ‘고양소식’은 모바일 ‘고양인력’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구독 신청할 수 있다.

이천·김민호 기자 mjh@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2025년 단체교섭 상례에서 이현재 시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협약서를 들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상례에 개최

경기 오산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지부는 지난 3일 시청 상형실에서 2025년 단체교섭 상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례에는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인 이현재 시장과 박민근 지부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해 상호 인사를 나누고, 향후 교섭 추진 일정과 방향을 공유했다.

오산지부가 제출한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본론 102개 조 201개 항과 부칙 8개 조 13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 활동 보장, 근로환경 개선, 인사제도 개선,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강화 등 공직자들의 근무여건 전반을 담고 있다.

이런재 시장은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신뢰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공직자들의 삶과 오산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근 지부장은 “2025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돼 의미가 크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만한 교섭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

경기 용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2026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25μg/m³ 이하를 목표로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부문에서 24개 항목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시는 운전자 배출가스 저감해와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전자 배출가스(공회전)를 수시로 점검하며,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대기배출시설이면서 상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먼지 다량 발생업종에 대해 통합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지하철거와 도사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와 공기청정기별 적정 가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미세먼지 필터 21곳을 운영한다.

용인·오영석 기자 ows@siminilbo.co.kr

군포시, 주거복지위서 내년 사업계획 논의

경기 군포시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일 군포시정 협의회에서 ‘2025년 제2차 군포시 주거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군포시 주거복지 주요사업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주거복지사업 추진 계획(안)을 심의 있게 논의했다.

특히 효율적인 ‘주거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축복는 시민 홍보와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한 확대 ▲주거복지 사업제 개발 방안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군포·송윤경 기자 ygs@siminilbo.co.kr

안산시, 도로 코트라·자동화센터 공식 방문

경기 안산시는 로프트산업 육성과 경기경제자유구역 ASV지구 홍보, 해외 투자·교류 기반 강화를 위해 지난 3일 코트라(KOTRA) 도로무역관과 도로 자동화센터(OMRON Automation Center Tokyo)를 공식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 로프트산업 육성 경제사절단(단장 이민근)’은 로프트 본사 세계 최대 수준의 비즈니스 박람회인 ‘2025 도로 로프트 전시회(GREX 2025)’ 참가와 일본 로프트 산업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로프트 기업 유치와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자 지난 2일부터 일본 도쿄를 공식 방문 중이다.

이민근 시장은 KOTRA 도로무역관에서 박용민 KOTRA 일본 지역본부장을 만나 경기경제자유구역 ASV지구를 소개하고 일본 기업 대상 홍보 및 교류·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ASV지구를 일본 기업에 적극 알리고 무역·투자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외견 교류를 통해 도로무역관내 ASV지구 전용 홍보 게시대를 설치했다.

KOTRA 일본지역본부장은 도로,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4개 무역관을 운영하며 한·일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일본 진출 한국기업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있다.

안산·송윤경 기자 ygs@siminilbo.co.kr

파주시, ‘택시 운영 활성화’ 상생협력 체계

경기 파주시가 지역내 주요 택시운송사업자 단체들과 ‘파주시 택시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유승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자협회 파주시지회장, 김준호 파주시 일반택시노조연합회 총무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시장 추진 중인 택시 교통망 향상 및 시민들의 택시 이용편의 증진 방안과 관련한 시와 택시업계 간 상호 협력 체계를 다지고, 지역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회 파주시에서는 모두 826대의 택시가 운영 중이지만, 지역적으로 운행 범위가 매우 넓은 탓에 출퇴근 시간 등 택시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

이에 시와 택시업계는 택시 교통망 향상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교통망 향상을 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통해 택시공공 확대, 택시 운영 활성화, 시민 편의 증진을 이뤄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파주·조영현 기자 cho2@siminilbo.co.kr